

<참관기>

교토대동남아시아지역연구소-한국동남아학회 공동학술대회 2023

전 제 성*

교토대 동남아시아지역연구소와 한국동남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례학술대회(CSEAS-KASEAS Joint Conference 2023)가 올해 5월 26일(금요일)과 27일(토요일) 양일간 교토대 동남아시아지역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동남아학회(KASEAS) 측에서는 8명의 회원이 스스로 항공운임을 부담하여 참가했다. 교토 측은 17명을 참여시켰고 한국 측 참가자에게 숙식, 일비, 투어를 제공하였다.

올해 대회는 여덟 번째 동남아시아연구 한-일 교류였다. 2009년 경상대에서 첫 대회를 개최하며 우리가 일본 학자들을 초청한 이래 양 측이 번갈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다섯 번을 격년으로 진행한 뒤에 약간 쉬었다가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 발전했다. 일시 중단된 적이 있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화상으로 두 차례 진행한 지라 대면 행사는 6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글을 통해 이번 대회 참가 소감을 밝히고 동남아시아연구한일공동학술대회의 역사도 돌아보고자 한다.

*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장, 제17대 한국동남아학회장. jjeseong@gmail.com



<사진 1> 2023동남아시아연구한일공동학술대회 개최식

I. 동남아시아연구 한-일 교류의 출범

동남아시아연구 한-일 교류는 개인적인 친분이 조직적인 관계로 발전한 경우에 속한다. 필자는 2003년에 자카르타의 커피숍에서 코스케 미주노(Kosuke Mizuno) 교수를 만났다. 교토대 동남아연구소의 미주노 교수는 동부자바 수라바야시에서 노동운동 조사 중에 활동가들로부터 필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메일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다. 여느 인도네시아연구자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금방 친해졌고 같은 주제의 연구자니 더욱 나눌 말이 많았다.

필자보다 열두 살 연상인 미주노 교수는 쾌활하고 개방적이었고 신진학자를 격려하고 초대하길 좋아하는 이였다. 그는 2005년에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인류학저널국제학술대회의 노동운동연구 패널에 필자를 발표자로 초대하였다(당시 발표문은 Jeon 2023). 같은 해에 교토대에서 개최하는 동남아연구 중점대학 컨퍼런스에도 발표자로 초대하였고, 이듬해 방콕에서 개최된 후속 학술대회

에도 초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만남을 거치며 필자는 교토대 동남아연구소 소장이 된 미주노 교수에게 새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와 교류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하였고 미주노 교수가 이를 기꺼이 수용했다. 이에 따라 윤진표 당시 소장과 황인원 박사가 한국동남아연구소를 대표하여 교토를 방문하고 교류협정을 체결한다.

방콕에서 만났을 때 미주노 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아쉽게 여겨 필자는 미주노 교수를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약속한다. 마침 한국동남아학회장 임기를 시작한 서울대 인류학과 오명석 교수는 학회와 교토대 동남아연구소 사이의 공동학술대회를 추진해 보자고 제안한다. 필자는 학회 연구상임이사로서 미주노 교수를 전북대에서 2008년에 개최되는 춘계학술대회 때 주제 강연자로 초청한다. 미주노 교수는 자비로 온 가족을 동반하여 서울을 거쳐 진주를 방문한다. 그리고 이 때 ‘한국발’ 동남아시아연구 한-일 교류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방안에 합의하게 된다.

오명석 회장은 첫 학술대회를 한국에서 열기로 하였고 2009년 7월에 경상대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 교토 측 학자들을 초대하기로 한다. 이 첫 대회의 주제는 “Interdependency of Korea, Japan, and Southeast Asia: The Migration, Investment, and Cultural Flow”였다. 당시 미주노 소장을 비롯하여 요코 하야미, 준코 고이주미, 히로 슈미즈, 이토 마사코, 조조 아비날레스, 오카모토 마사아키 교수 등 교토대 동남아시아지역연구소의 핵심 학자들이 대거 방한했고, 리츠메이칸대의 준 혼나 교수도 동행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항공운임과 행사비를 한국 측에서 부담하고 교토 측 학자들이 자신들의 숙박비를 부담했다. 한-일 동시통역도 제공되었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함께 진주성을 관람하며 일본의 조선 침략사를 공부했다. 이 첫 대회가 한-일공동학술대회의 모델이 되었다.



<사진 2> 경상대에서 2009년에 개최된 제1회 공동학술대회

II. 한-일 교류의 전개

첫 대회의 성과에 만족한 양 측이 격년으로 번갈아 초청하는 방식으로 한일교류를 이어가자는데 합의했다. 2년 뒤인 2011년에 교토대 측이 약속대로 우리를 초청하였다. 주제는 “Green and Life in ASEAN: Coexistence and Sustainability in East Asian Connections” 였는데, 당시 교토의 연구 특성을 잘 담은 타이틀이었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제일한인 거주지인 우토로 마을을 방문했고 미주노 교수가 일어-영어 통역에 직접 나섰다. 박승우 회장 재임기에 이루어졌던 제2회 대회의 참가 소감을 필자가 작성하여 우리 학회지에 게재한 바 있다(전제성 2011). 한-일 교류는 공동학술대회에 그치지 않고 학

문후속세대 교류로 확장되었다. 교토대 동남아시아지역연구소는 동남아 현지연수 프로그램인 Southeast Asia Seminar에 한국의 대학원생과 신진학자를 초청하고 비용을 부담해 주었다(그 참관기는 엄은희 2012).

2013년 5월에는 홍석준 회장 시기에 목포대에서 개최된 한국동남아학회 춘계학술대회에 교토 측 학자들이 초대되었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함께 적산가옥을 둘러보았다. 교토발 동남아연구아시아학술대회(SEASIA: Southeast Asian Studies in Asia Conference)에 우리 학회가 참여하면서 한일 협력은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된다. 교토의 캐롤린 하우(Caroline Hau)와 박승우 학회장이 협의를 시작하고 박장식 학회장이 서명하여 우리 학회가 동남아연구아시아컨소시엄(SEASIA Consortium) 회원단체가 되고 2015년에 교토에서 개최된 제1회 컨퍼런스에 우리 학회원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어서 교토 측이 2016년에 우리를 다시 초대하였으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부족으로 “Japan-Korea-Southeast Asian Conference”라는 명칭의 교토 측 단독 행사로 개최되었다. 당시 대회에 필자를 비롯한 한국 학자 8명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같은 해에 학회는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동남아연구아시아컨소시엄에서도 탈퇴한다. 신윤환 학회장이 2017년 서울대에서 개최된 연례학술대회에 코노 야수유키 소장을 포함한 4명의 교토대 동남아시아지역연구소 소속 학자들을 초대하면서 양 측의 교류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코수케 미주노 교수가 은퇴하자 우리 학회와 교토의 교류가 다시 중단된다.

2019년에 오카모토 마사아키 교수가 필자를 인도네시아 세랑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초대하였고 이때 참여한 요코 하야미(Yoko Hayami) 교토대 동남아시아지역연구소장과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교류협정이 체결되었다. 같은 해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 초대되어 하야미 소장을 다시 만난 필자는 동남아연구자 한-일 교류

의 재개를 제안한다. 우리 학회의 행정 부담을 고려하여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한국 측 간사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 하야미 소장은 제안을 수락하며 젊은 세대 중심의 학술대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필자와 하야미 소장은 공동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교토 측이 개최할 차례라는 필자의 기억에 따라 교토대 동남아시아지역연구소가 우리 학회와의 2020년 공동학술대회를 “Connectivity and Transformation in Southeast Asia”라는 주제로 준비에 돌입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지연되다가 결국 11월에 화상으로 개최하게 된다. 교토대 동남아시아지역연구소 사상 최초의 화상 학술대회였다. 같은 해 전북대 동남아연구소는 동남아연구아시아컨소시엄에 적지 않은 분량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컨소시엄 13개 회원단체들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 멤버가 된다. 자카르타 회동 때 필자가 한국 측의 참여 필요성을 거론했고 학회보다는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지속성과 반응성에서 더 적합한 멤버일 수 있다는 하야미 소장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실무를 담당하여 “A Multifaceted Crisis in Southeast Asia: Challenges and Responses”라는 주제로 김형준 학회장 재임기였던 2021년 11월에 화상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은 교토대가 우리를 초대할 차례였다. 그러나 소장 교체와 담당 교수의 이적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 필자가 기억을 되살려 주었으나 이미 시기를 놓쳤고 어차피 늦어진다면 이듬해에 대면으로 개최할 것을 하야미 교수가 제안하였다.

Ⅲ. 올해 대회의 면모

한-일 교류 재개에 합의했던 하야미 교수가 소장 임기를 마쳤음에도 공동학술대회를 계속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Engaging Southeast Asian Studies in an Age of Uncertainties”라는 주제를 제안했다. 한국 측은 필자와 박장식(동아대), 유민지(전북대), 김용균(서울대), 구보경(부산외대), 박정훈(부산대), 현시내(서강대), Edo Andrisse(서울대) 회원이 참여하였다.



<사진 3> 공동학술대회 2023 포스터

개회식에서 필자는 “The Asian Solidarity Mov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Observations of 30 years of Development”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하는 영광을 누렸다. 요코 하야미 교수가 필자의 발표 내용이 대회의 주제에 부합하고 필자의 학회장 당선을 함께 축하하는 기회를 갖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이어서 총 18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 복귀, 환경 변화와 재난, 경제적 불평등, 감염병 발흥, 종교 갈등, 가짜 뉴스 등 여러 난제가 제기되었다. 난관을 극복하는 동남아 사람들의 창의적 시도도 아울러 검토되었다. 동남아 지역연구 방향과 현지 조사 방법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대회 실무를 담당했던 키쇼 쯔치야 교수가 정리한 뉴스레터 리포트에 잘 요약되어 있다

(Tsuchiya 2023).

이번 대회에서 실감한 인상적인 변화는 교토대 측 발표자들이 모두 젊은 학자였고 동남아 출신(박사과정 및 박사후과정)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다. 일본 동남아 학계의 현지 학자 포괄성(inclusiveness)이 우리보다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첫날 회의 종료 후 메이지 유신 시대에 조성된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식당에서 푸짐한 저녁을 나누며 환담을 나눴다.

둘째 날 회의를 마친 뒤에 교토대 동남아지역연구소는 공동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 우토로평화기념관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 달 전에 개관 1주년을 맞이했던 평화기념관은 우토로 마을 재일 코리안의 삶과 투쟁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곳이었었는데, 우토로 사람들의 투쟁 과정이 그랬듯이 기념관의 설립과 운영도 한국과 일본의 시민연대가 가동된 사례였다. 우리를 직접 안내하면서 하야미 교수는 2009년 한국동남아학회가 제공한 진주성 관람이 몰랐던 사실을 접하고 일본 역사를 다시 볼 기회를 제공했다고 회고했다.

학술대회 막간에 실무 협의도 이루어졌다. 교토대 동남아지역연구소 후미하루 미에노(Fumiharu Mieno) 신임 소장은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한국동남아학회를 연결하듯이 교토 측도 일본동남아학회나 일본동남아정치경제학회를 연결시켜 더 넓은 교류의 장을 제공할 계획인 이야기를 했다. 더 많은 일본 학자와 교토 외의 지역에서도 만나자는 것이었다. 필자는 미에노 소장의 아이디어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다음 한국 대회는 일본 학자의 편의를 위해 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에서 개최될 것이며 부산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주었다. 하야미 교수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했더니 하야미 교수는 내년엔 정년퇴임한다 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하야미 교수가 우리에게 선사한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전제성. 2011. “참관기: 제2차 한국동남아학회-교토대동남아연구소 공동 국제학술회의.” 『동남아시아연구』 21(3): 299-303.
- 엄은희. 2012. “2011 Southeast Asia Seminar 참관기.” 『동남아시아연구』 22(1): 317-323.
- 우토로평화기념관. <https://www.utoro.jp/ko/> (검색일: 2023.11.28.)
- Jeon, Je Seong. 2023. “Kebangkitan Kepemimpinan Kelas Buruh di Indonesia: Kasus PT Maspion Unit I, Sidoarjo, Jawa Timur.” Yoon Hwan Shin dan Sony Karsono eds. *Indonesia dalam Transisi: Catatan Para Indonesianis Korea*. Yogyakarta: UAD Press.
- SEASIA Consortium. <https://seasia-consortium.org/> (검색일: 2023.11.28.)
- Tsuchiya, Kisho. 2023. “CSEAS-KASEAS Joint Conference 2023: Engaging Southeast Asian Studies in an Age of Uncertainties.” *Newsletter* 81(3). <https://kyoto.cseas.kyoto-u.ac.jp/en/news/2023/07/nl-81-cseas-kaseas/> (검색일: 2023.11.28.)

